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 전달 및 가치변화의 인식

Transmission of Values in Child-Rearing Orientations and Perceptions of Change

안동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玄 恩 旻

Dept. of Home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ssistatnt Prof.: Eun Min, Hyun

이 연구는 방위가족과 생식가족간에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과 가치변화의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특히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가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전달되는지와 두가치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독립심의 가치는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전달되고 더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순종의 가치는 방위가족에서나 생식가족에서 중요성이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그들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만자녀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생식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선택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만자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가족에서 순종의 가치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없는것으로 나타났고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족소득, 종교와 만자녀 연령은 생식가족에서 순종의 가치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I. 서 론

가치는 개인의 모든 생활국면에 내재해 있으며 가족 개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그 가족의 행동을 결정하며 가족의 동기와 포부를 유형화 하며 가족의 지각과 이해를 좌우하기도 한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는 가치관은 가정적, 사회적으로 의의가 깊고 개인의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태현, 1976). 가정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규범의식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회적 근원으로 인식된다. 특히 어머니의 가치관은 자녀의 동기, 가치, 인성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급변하는 현대사회는 가족구조, 가족형태의 외형적인 변화뿐 아니라 내부적인 가족간의 인간관계, 역할, 가치관지향등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가족에게 일어나는 여러가지 변화들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영향력을 축소시켰으며, 가족외부의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이 증대됨으로 인해 특히 오늘날의 한국가족은 신구전환의

과도기적 사회에서 전통적 가치와 근대적 가치 사이에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자녀양육에 중요한 어머니의 가치의식이 세대에 걸쳐 어떻게 전달되고 사회와 가족의 변화와 더불어 어머니의 가치인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은 미래의 가족관계 및 자녀양육 행동의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양육과정에서 어머니의 가치가 기혼딸에게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지와 가치인식에 대한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는 데 있다. 자녀의 사회화과정에서 부모의 가치관 변화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최근의 문헌(Alwin, 1984)은 순종의 가치보다 독립성의 가치가 중요시된다고 밝히고 있고 사회인구학적 변화는 부모의 자녀양육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이 연구에서 특히 독립성의 가치와 순종의 가치인식에 대한 변화 및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대해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1. 가치의 개념

가치는 행위의 이용 가능한 제 목표, 수단 및 양식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이 특유하게 소유하고 있는 바람직스러운 것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Baier, 1971). Smith는 인간의 선택적인 행동에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의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Rokeach(1973)는 가치란 존재의 궁극적 상태와 특정 행동에 대한 지속적 믿음이며, 가치세계는 가치의 지속적 조직이므로 가치는 인간 믿음체계의 중심이며 행동의 지침이 된다고 하였다. Allport(1937)는 가치는 생활 모든 면에 있어서 지배적인 힘으로써 인간의 모든 행동은 가치와 생활철학을 인식하는 방향감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중요한 가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고 학습된다. 가치는 가족이나 사회의 소속집단의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

을 통해서 습득되는 문화현상으로 사회생활의 내용이 서로 다른 집단, 계급, 국가간에는 가치관의 규명이 대단히 중요하다.

종래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는 가치의 개념적 특성들을 요약하면; 다양한 개념을 통해서 관념적으로 재구성된 추상, 특정상황을 초월하는 궁극적 인지로서의 특성, 제 가치의 체계적 통합성 및 서열성, 일시적 감정에 의해 쉽게 변하지 않은 지속성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가치는 동기의 한 측면으로서 인간행위를 결정하는 판단작용을 수행하고, 지속적, 궁극적이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영향력을 광범위하게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반면에 추상적이기 때문에 구체적 행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회심리적 제 요인을 고려해야 하는 한계를 지니는 개념인 것을 인식해야 한다(임희섭, 1987).

Rokeach(1975)는 가치를 서열별로 분류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뿐 아니라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였고 가치를 궁극적 가치(terminal value)와 수단적 가치(instrumental value)로 분류했다. 궁극적 가치는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규명된 그 자체로서 가치있는 것을 말하고 수단적 가치는 높은 수준의 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바람직한 행동 양식을 나타낸다. Kluckhorn(1960)은 가치를 관계의 영역으로 기술하였으며 가치차원을 고유한 인간본성지향, 자연과의 관계지향, 시간지향, 활동지향과 인간관계지향으로 보고 이러한 가치유형은 가정환경 및 사회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된다고 하였다.

2. 부모 자녀간의 가치전달

가족내의 가치전달을 연구한 문헌들을 크게 부모 자녀간 가치 일치와 전달에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 지고 있다.

Bengtson과 그의 동료들(Bengtson, 1982; Troll & Bengtson, 1979)은 실제로 어떤 가치관과 가치 지향이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가를 알기위해 일반적 전달 접근법(General transmission approach)을 개발하였으며, 특히 미시적 수준에서 가족내의 세대간 가치전달에 많은 연구를 하였다. 그들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정치적 지향, 종교적 지향 그리고 직업적 지향에 있어서는 세대간에 유사한 가치가

발견되나 그외에는 큰 유사성은 없다고 하였고, 부모와 자녀의 성에 따라 가치전달에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자녀의 가치관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가치전달이 여러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밝혀주고 있다. Furstenberg(1971)는 부모 자녀간의 가치의 유사성에 영향을 미치는 네가지 요소를 부모자녀간의 빈번한 상호작용, 부모에 대한 자녀쪽의 자발적인 상호접촉, 질적인 상호관계와 자녀가 부모에게 조언을 구하는 정도임을 지적했다. 성취동기에 있어서 모자간에 유사한 가치의 전달을 연구한 Rosen(1964)에 의하면 하류계층보다 중류 계층에서, 가족수가 적을수록, 독립심에 대한 훈련을 일찍 받았을때,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그리고 애정어린 훈육태도를 가진 가정에서 어머니의 가치가 아들에게 성공적으로 전달된다고 하였다. 자녀의 성차에 따른 부모가치의 전달현상을 연구한 Simons et al.(1992)은 부모의 수용적 태도와 자녀에 대한 통제 및 훈련의 가치는 가족생활주기중 청소년기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갖도록 격려하는 수용적인 부모의 태도와 가치는 아들보다 딸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반면 자녀에 대한 효율적 통제와 훈련의 가치는 청소년 아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Stinnett과 Kreps(1972)의 연구에서는 부모들은 특정한 가치들 즉, '정직성과 통합성', '친밀감과 자신감'은 성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된다고 인식한 반면 '정신적 성장', '타인에 대한 순수한 관심과 책임감' 그리고, '도덕적 용기'의 가치들은 잘 전달되지 않는다고 인식했다. Schlater(1969) 연구에서는 전 가족이 공유하는 보편적인 가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가치의 유사성은 가족 형태가 클수록 감소되고, 세대간에는 한쪽 부모와 자녀사이에 공유하는 가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자녀간의 친밀한 관계는 자녀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밀접한 관계 그 자체가 자녀의 특정한 가치지향을 발달시킨다기 보다 친

밀감이 부모의 가치와 상호작용하여 자녀의 가치 지향에 영향을 미친다(Mortimer, 1976). 따라서, 부모의 가치는 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족에서 성공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Langman과 Block(1979)도 부모의 애정, 따스함이 자녀에의 가치전달에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했으며 자녀가 부모를 중요한 존재로 인식할수록 부모의 가치관을 따르며, 부모의 거부적인 태도는 세대간에 상이한 가치로 이끈다고 밝혔다.

그러나, Troll과 Bengtson(1979)은 위의 연구와 대조적으로 가족상호관계의 질적인 면이 세대간의 가치전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세대간의 가치일치의 정도는 부모 자녀사이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Kohn(1981)은 부부간에 공유하는 가치의 유사성이 적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부부간에 가치가 다를때 누구의 가치가 자녀에게 전달되는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치가 일치하지 않을 때 어머니의 가치가 아들, 딸 모두에게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engler & Wood, 1973; Troll & Bengtson, 1979; Feather, 1975). 일반적으로 아들에 비해 딸이 어느 한쪽 부모와 또래의 가치에 더 순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Boyd, 1975; Feather, 1975).

Mortimer(1976)와 Segre(1975)는 가치지향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에 관한 연구에서 중류 계층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기통제(내적통제)에 가치를 두고 자녀의 행동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는 한편 하류계층의 부모는 외적권위에 순응하는(외적통제) 가치를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밝혔다. 또한 중류 계층의 어머니들은 아들, 딸 구별없이 같은 기대를 가지는 반면 하류계층의 어머니는 그들의 포부를 자녀의 성에 따라 구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어머니의 직업과 직업에의 만족감이 부모자녀의 질적인 상호관계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와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가치전달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Harrel & Ridley, 1975). 전문직의 어머니를 가진 여성이 직업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와 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Parsons, Frieze & Ruble, 1978).

3. 가치의식의 변화

가족의 체계로서의 특성은 변화하면서 발전해 가는 데 있다. 급속한 사회변화는 가치관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변화의 속도는 가치의 변화에 대한 태도와 새로운 가치의 수용태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Gross, Crandall, & Knoll, 1980). 개인의 가치는 생활주기 전반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리적, 사회적 상호작용 과정의 산물이다. 가족관계에 대한 가치의식의 변용에 대해 학자들은 점진적인 변화와 비본질적 변화의 주장을 하고 있다(김명자, 1980). 부모자녀간의 가치관 갈등에 대해 최재석(1977)은 한국 고유의 전통을 가진 부모층과 서구식 교육을 받은 젊은층의 생활원리의 충돌 내지 부조화에서 가족 가치관에 대한 혼란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간에 같은 가치를 가진다는 경험적 증거는 거의 없다(Furstenberg, 1971; Smith, 1982; Whitbeck & Gecas, 1988). 가족이 자녀의 가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사회화 이론에 비추어 볼 때 왜 부모자녀간에 같은 가치가 전달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 의문에 대해 Furstenberg(1971)는 사회화 과정의 복잡성과 가족 외부의 사회와 문화의 영향력을 들고 있다. 사회화 과정은 자녀가 정확하게 부모의 가치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고 부모자녀 사이의 가치 전달은 사회적, 문화적 배경에 영향을 받아 부모의 인식이나 통제를 벗어날 수도 있다고 보았다. 전통적인 가부장제인 우리 사회는 급속한 사회적 변화에 의해 전통적 가치관의 하나인 가족주의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정에서 상당히 약화되고 개인주의가 크게 강화 되었으나 아직도 가족주의의 가치관은 한국인들의 의식과 행동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임희섭, 1986).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대해 연구한 최근의 문헌들은 자녀에게 순응과 복종보다 독립성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것으로 부모의 가치관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Alwin, 1984; Duncan, Du-

ncan & Mcrae, 1978). 복종과 순응 그리고 협동의 가치는 가족의 협동과 질서에 의해 식량생산이 가능했던 농경사회에서(Barry, Child & Bacon, 1973), 부모의 감독과 권위가 뚜렷한 확대가족에서(Lee, 1977), 천주교 가정에서(Alba, 1981; McIntosh, 1982), 하류 계층의 가정에서(Kohn, 1981), 출생 순위가 막이 일때(Lee, 1977), 자녀의 성이 여자일때, 가족수가 많을수록(Flder & Bowerman, 1963), 그리고 어머니의 수입이 많을수록 강조 되었다. 이들 연구들은 복종과 순응 그리고 협동의 가치는 감소되고 독립성의 가치가 강조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부모가치관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가족수의 감소(Clausen & Clausen, 1973)와 증가하는 편부모 가족 및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의 증가(Alwin, 1984)가 지적되고 있다. 특히, 사회계층과 교육이 부모 가치관의 변화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Alwin, 1984). Alwin(1984)은 교육, 직업과 수입이 가족형태나 구성보다 부모의 가치관에 더 강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모의 가치관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은 강한 반면 종교와 직업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고 교육수준의 향상과 대중매체에 의한 다양한 생활 방식의 결과로 성차에 따른 상이함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horton, Alwin & Camburn, 1983).

III. 연구방법

1. 연구 문제

본 연구는 가치의 사회화 과정에서 인간을 복합적인 적응 주체로 본 생태학적 관점에 근거하여 인간을 자극에 반응하고 인지하는 detector로서와 다른 반응에 비해 하나의 반응을 선별하는 selector로서 또한 선택한 반응을 행동으로 실행하는 effector로서 본 kuhn(1975)의 개념에 기초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가족내의 가치전달 변화 현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어린시절 자신의 방위 가족에서 부족했거나 강조되지 않았던 가치들 중

중요시되기를 원했거나 더 필요하다고 인식한 가치들이, 자신의 생식 가족에서 선택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방위가족에서 인지한 어머니의 가치와 자신의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선택한 가치간에 전달 및 변화가 있는가에 초점을 둔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독립심의 가치는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더 강조되는가?

〈연구문제 2〉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순종의 가치는 생식가족에서 자녀에게 더 감소되는가?

〈연구문제 3〉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에서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가?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대구와 안동에 거주하는 자녀를 가진 주부 301명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대구와 안동의 중학교들을 임의로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질문지를 배포하여 어머니에게 응답하도록 하였다. 회수율은 80% 였고 부실자료를 제외한 301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에게 방위가족에서 그들의 어머니의 가치로 인식한 가치와 생식가족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하기로 선택한 가치들에 관한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전달 및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3. 측정도구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가족내 세대간에 가치전달 및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교육수준,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소득, 직업, 종교 그리고 딸 자녀의 연령에 대해 알아보았다.

2) 가치척도

Rokeach(1975)가 분류한 수단적 가치 중 자녀 양육에 강조되는 13가지 가치를 선정하여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13가지 가치들은 독립심, 순종, 협동심,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1

변 인	분 포	N	%
연 령	29세 이하	3	1
	30-39세	95	32
	40-49세	170	56
	50-59세	32	10
	60세 이상	1	1
	M=42 S.D=5.77		
조 사 대상자의 교육수준	국민학교이하	40	13
	중 졸	76	25
	고 졸	127	42
	전문대·대졸	54	18
	대학원 이상	3	1
무 응 답	1	1	
아버지의 교육수준	무 학	50	17
	국 졸	82	27
	중 졸	55	18
	고 졸	70	23
	전문대·대졸	29	9
	대학원 이상	10	4
무 응 답	5	2	
어머니의 교육수준	무 학	87	29
	국 졸	143	48
	중 졸	40	13
	고 졸	23	8
	전문대·대졸	3	1
	대학원 이상	0	0
무 응 답	5	2	
가 족 월 소 득	30 만원 이하	5	1
	30- 50 만원	15	5
	50- 70 만원	35	11
	70-100 만원	88	30
	100-150 만원	91	31
	150만원 이상	58	20
	무 응 답	9	3
	M=70-100만원 M0=100-150만원 S.D=1.8		
직 업	주 부	180	60
	전 문 직	13	4
	사 무 직	25	8
	생산 판매직	80	27
	무 응 답	3	1
종 교	무 교	76	25
	기 독 교	54	18
	천 주 교	30	10
	불 교	137	46
	기 타	4	1
딸자녀의 연 령	5세 미만	14	5
	6-12세	26	8
	13-25세	238	80
	26세 이상	22	7
	M=17 S.D=6.32		

자존심, 평등, 전통 및 관례 존중, 정직성, 탐구성, 책임감, 성취, 봉사심, 그리고 견해수용의 가치들로서 각 가치마다 2항목씩 26항목을 포함한다. 조사대상자는 자신의 어머니가 각 가치들을 얼마나 중요시 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만자녀에게 이들 가치들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않다)에서 가장 중요했다(하다)까지 7단계 Likert scale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전체 가치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6으로 나타났다.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는 4항목으로써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5로 나타났다.

4. 자료분석

자료의 분석은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평균, 백분율,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일원변량분석, T-test,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IV. 결과 및 논의

1. 가치의 변화에 대한 인식

가치의 변화에 대한 증거는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가치와 생식가족에서 선택한 가치간의 평균값의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표 2, 3). 조사대상자들이 선택한 가치는 그들 어머니의 가치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높게 인식했다. 그러나 순종의 가치와 전통과 관례의 가치들만은 방위가족에서 보다 생식가족에서 낮은 평균값을 가진 가치들로 나타났다.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의 가치순위의 차이에서도 가치의 변화를 인식할 수 있다(표 2, 3). 전통과 관례의 가치는 방위가족에서 두번째로 중요한 가치였으나 생식가족에서는 전혀 중요한 가치가 아닌 것으로(열두번째) 인식되었고 순종의 가치도 방위가족에서 8위였으나 생식가족에서 가장 낮은 13위로 중요성이 감소되었다. 방위가족에서 10위의 독립심의 가치는 생식가족에서 6위로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탐구성의 가치도 13위에서 9위로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가치의 변화인식에 관한 또 다른 근거는 조사대상자의 연령과의 상관관계에도 알수있다. Pearson의 상관계수는 연령과 방위가족에서의 독립심의 가치($r = -.06$)와 순종의 가치($r = .01$)간에 상관관계가 없음을 나타내 주고 생식가족에서 연령과 독립심의 가치($r = -.12, p < .05$)와 순종의 가치($r = .17, p < .01$)는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나타낸다.

자녀의 사회화과정에서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는 젊은 어머니들에게 더 큰 관심사인지 모른다. 만자녀의 연령과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독립심 가치($r = -.02$)는 상관관계가 없었고 생식가족에서 선

표 2. 가치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가 치	방위가족		생식가족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독립심	3.60	1.55	4.94	1.15
순종	3.81	1.50	3.65	1.51
협동심	4.15	1.56	5.21	.92
자존심	3.61	1.49	4.58	1.34
평등	4.08	1.56	4.96	1.15
전통과관례	4.20	1.69	3.98	1.37
경쟁심	3.36	1.54	4.38	1.36
정직성	4.11	1.58	5.18	.99
탐구성	3.14	1.58	4.37	1.36
책임감	4.80	1.32	5.55	.72
성취	3.97	1.48	5.16	1.01
봉사심	3.92	1.54	4.48	1.17
견해수용	3.34	1.33	4.30	1.07

표 3. Paired t-tests에 의한 가치들의 평균값 차이

가 치	방위가족	생식가족	상관계수	T 값
독립심	3.60	4.94	.33	14.54****
순종	3.83	3.64	.32	- 1.91
협동심	4.15	5.21	.36	12.23****
자존심	3.61	4.57	.41	10.71***
평등	4.09	4.96	.48	10.61***
전통과관례	4.20	3.98	.44	- 2.28*
경쟁심	3.36	4.37	.47	11.76***
정직성	4.11	5.18	.37	12.22***
탐구성	3.14	4.37	.32	13.05***
책임감	4.80	5.55	.42	10.88***
성취	3.97	5.16	.21	12.82***
봉사심	3.93	4.48	.60	7.68***
견해수용	3.34	4.30	.27	11.26***

*P<.05 **P<.01 ***P<.001

택한 독립심 가치와의 관계는($r = -.16, p < .01$) 방위가족에서 보다 높고 유의하였다. 딸자녀의 연령과 순종의 가치간의 관계도 방위가족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나($r = .10$) 생식가족에서는($r = .18, p < .01$)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주었다. 표 3의 T-tests 결과는 예측한 방향으로 가치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으나 독립심의 가치는 방위가족에서보다 생식가족에서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순종의 가치는 방위가족에서나 생식가족에서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2.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가치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가치들의 평균값의 순위는 조사대상자의 어머니가 강조한 중요한 가치들을 나타낸다(표 2, 3). 조사대상자들은 그들 어머니가 책임감($M = 4.8$), 전통과 관례존중($M = 4.2$), 협동심($M = 4.15$), 정직성($M = 4.11$)의 가치를 중요시했다고 인식한 반면 독립심($M = 3.6$), 경쟁심($M = 3.36$), 탐구성($m = 3.14$)의 가치는 강조하지 않았다고 인식했다.

표 4와 5는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와 순종의 가치를 사회인구학적 변인별로 일원변량분석한 결과이다.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독립심의 가치는 40대 집단에서 중요시 되었음을 인식하였고 LSD 사후검증 분석에서 30대 집단과 50대이상 집단간에 그리고 40대 집단과 50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표 4).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심 가치가 중요시 되었음을 인식했다. LSD 사후검증 분석에서 국졸이하집단과 고졸집단, 국졸이하집단과 대졸집단 그리고 대학원이상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중졸집단과 대졸집단간에도 차이가 나타났다($F = 4.40, p < .01$). 교육의 주기능은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사고 할 수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적 적응력이 향상되고 이것이 개인의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Alwin(1984)은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이 보다 대등한 성역할 관념을 가지고 자녀에게 자율성의 가치를 선호한다고 하였다.

표 4. 사회인구학적변인에 따른 독립심의 가치

변 인	구 분	N	방위가족 평균	생식가족 평균
연 령	30대	98	3.59	4.91
	40대	170	3.72	5.02
	50대이상	33	2.97	4.58
	F 값	301	3.32*	2.16
조 사 대상자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40	2.90	4.40
	중 졸	76	3.38	4.82
	고 졸	127	3.74	5.07
	전문대·대졸	54	4.00	5.13
	대학원이상	3	5.00	5.67
F 값	300	4.40**	3.63**	
아버지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132	3.55	4.94
	중 졸	55	3.38	4.80
	고 졸	70	3.67	4.90
	전문대·대졸	29	3.86	5.00
	대학원이상	10	4.30	5.20
F 값	296	1.08	.35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230	3.45	4.96
	중 졸	40	4.00	4.65
	고 졸	23	4.13	5.04
	전문대·대졸	3	5.00	5.00
F 값	296	3.44*	.90	
가족소득	70만원이하	55	3.58	4.80
	100만원이하	88	3.28	4.82
	150만원이하	91	3.86	4.96
	150만원이상	58	3.72	5.26
	F 값	292	2.21	2.13
직 업	주 부	180	3.51	4.88
	전문직	13	4.00	5.62
	사무직	25	3.60	4.92
	생산판매직	80	3.73	4.91
	F 값	298	.66	1.66
종 교	무 교	76	3.53	4.91
	천주교, 기독교	84	3.74	4.96
	불 교	137	3.52	4.96
	F 값	301	.59	.06
만 자 녀 연 령	5세미만	14	3.07	5.57
	6-12세	26	3.12	4.65
	13-25세	239	3.74	4.98
	26세이상	22	2.91	4.41
	F 값	301	3.64**	3.70**

* $P < .05$ ** $P < .01$ *** $P < .001$

아버지의 교육수준 차이에 따른 딸의 독립심가치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심의 가치를 강조한 것으로 인식했다. 이것은 자녀의 사회화교육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Troll & Bengtson, 1979), Alwin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학력은 자녀의 자율성(독립심) 가치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득과 직업, 그리고 종교는 방위가족에서 독립심 가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딸자녀의 연령이 독립심의 가치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검증 분석에서 딸의 연령이 많을수록(26세이상 집단 제외) 방위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가 강조되었음을 인식했다. 청소년기(13~25세)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독립심가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성인기(26세이상)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인식이 가장 낮았다. 학동기(6~12세) 자녀를 가진 집단과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청소년기 자녀집단과 성인기 자녀집단간에도 차이가 있었다.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순종의 가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5).

3. 생식 가족에서 선택한 가치

가치들의 평균값의 순위는 어머니들(조사대상자)이 자신의 자녀에게 전달하고 싶은 중요한 가치임을 나타낸다(표 2, 3). 어머니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딸자녀에게 책임감(M=5.55)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협동심(M=5.21), 정직성(M=5.18), 성취(M=5.16)의 가치를 갖기를 원했다. 가장 낮은 순위의 가치는 전통과 관례(M=3.98)와 순종(M=3.64)의 가치로 나타났다. 양세대의 어머니들은 책임감·협동심·정직성을 상위순위의 가치로 인식했으며, 견해수용과 경쟁심의 가치를 하위 순위의 가치로 인식했다. 조사대상자가 어머니의 가치로 인식한 가치와 자신의 가치로 선택한 가치간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독립심과 탐구성의 가치는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전통과 관례의 가치는 중요성이 감소되었다(표 2, 3).

생식가족에서 선택한 독립심의 가치는 조사대상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순종의 가치

변 인	구 분	N	방위가족 평균	생식가족 평균
연 령	30대	98	3.68	3.32
	40대	169	3.88	3.85
	50대이상	33	3.85	3.59
	F 값	300	.54	4.03**
조 사 대상자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40	4.05	3.50
	중 졸	75	3.88	3.93
	고 졸	126	3.60	3.54
	전문대·대졸	53	4.08	3.63
	대학원이상	3	2.33	3.67
F 값	297	2.07	.91	
아버지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130	3.96	3.62
	중 졸	54	3.59	3.45
	고 졸	70	3.66	3.84
	전문대·대졸	29	3.66	3.68
	대학원이상	10	4.00	3.40
F 값	293	.90	.58	
어머니의 교육수준	국졸이하	228	3.80	3.59
	중 졸	39	3.72	3.85
	고 졸	23	3.74	3.83
	전문대·대졸	3	4.67	4.00
F 값	293	.40	.51	
가족소득	70만원이하	55	4.02	3.89
	100만원이하	87	3.77	3.94
	150만원이하	91	3.78	3.42
	150만원이상	59	3.68	3.30
	F 값	290	.51	3.40*
직 업	주 부	178	3.85	3.70
	전문직	13	3.31	3.23
	사무직	25	3.88	3.52
	생산판매직	59	3.82	3.65
	F 값	296	.55	.47
종 교	무 교	76	3.64	3.14
	천주교, 기독교	84	4.00	3.75
	불 교	135	3.81	3.84
	F 값	295	1.14	5.80**
만 자 녀 연 령	5세미만	14	3.57	2.50
	6-12세	26	3.08	3.46
	13-25세	239	3.90	3.73
	26세이상	21	3.86	3.71
	F 값	299	2.53	3.17*

*P<.05 **P<.01 ***P<.001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독립심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변인	독립심		
	B	β	T
교육	.137	.142	2.30*
만자녀연령	-.018	-.098	-1.59

R² = .041
F = 6.32**

*P<.05 **P<.01

자의 교육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독립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 6). 이는 Alwin(1984)의 결과와 일치하고 Bronfenbrenner(1979)도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아에 대한 사고가 증대하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자아통제와 자율성을 갖도록 원한다고 하였다.

만자녀의 연령은 어머니의 독립심 가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LSD 사후검증 분석에서 5세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독립심 가치를 가장 중요시했으며 학동기(6~12세)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청소년기(13~25세) 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독립심을 덜 강조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자녀가 학령에 도달하는 시기로서 학교생활에서 지켜야 할 일정한 제약이나 규율면에서 그리고 또래친구들과 공동생활에서 적응하는 것을 배움으로써 통제능력이 증가하고 자율성이 발달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는 가정뿐 아니라 친구 그리고 학교생활의 상호영향으로 사회성 발달 및 가치관이 형성되고 학교생활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청소년기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독립심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청년기의 발달과업인 자아정체감 확립과 독립된 존재로서의 욕구충족에 독립심의 가치 강조는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령, 부모의 교육수준, 가족소득, 직업과 종교는 생식가족에서 독립심 가치선택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한편 순종의 가치선택은 연령과 소득수준, 종교, 그리고 만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5). LSD 사후검증 분석에서 연령별 차이를 보면 30대집단의 평균값은 가장낮으나 40대 집단이 50

대집단보다 자녀에게 순종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4.03, p<.01). 연령이 젊은 어머니가 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질 확율이 높고 또한 교육수준도 높으므로 순종의 가치를 덜 중요시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50대이상 집단보다 40대이상 집단에서 순종의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것은 만자녀가 사춘기 시기에 접어들어 발달 시기적 특성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 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는 독립성추구와 반항의 시기로 알려져 있다. 청소년의 독립추구는 학교와 사회로 부터의 독립 뿐만 아니라 가정과 부모로 부터의 독립도 포함된다(이춘재 외, 1988). 청소년이 보이는 이유없는 반항과 부모보다 또래집단등 가정밖의 사회적 준거 집단으로 부터의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므로 부모와 자녀간에 여러가지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가정에서 순종의 가치가 강조된다고 볼 수 있다.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순종의 가치선택이 감소하고 최저소득 집단(70만원 이하)과 최고 소득 집단(150만원이상 집단)과 100만원이하 집단과 150만원이상 집단간에 그리고 100만원이하 집단과 150만원이하 집단간에 차이가 있었다(F=3.40, p<.05). 이 결과는 Alwin(1984)과 Mortimer(1976)의 연구에서 처럼 하류계층의 부모가 외적 권위에 순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경향이 있고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은 부모가 사회생활에서 성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므로 엄격한 감독과 규칙을 강조하는 정도가 낮다고 한것과 일치하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평균가족소득(70~100만원)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평균이하 집단보다 평균이상 집단에서 순종의 가치가 낮게 나타났으나 다른 집단에 비해 가족소득이 100만원이하 집단에서 순종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것은 중하위층 어머니가 더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가족소득과 순종의 가치와의 관계는 추후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종교의 유무가 순종의 가치에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가 없는 집단이 자녀에게 순종의 가치를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종교와 순종의 가치관계는 Alwin(1984)과 Hoge, Prillo &

Smith(1982)의 연구에서 천주교가정에 가장 강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집단별 차이를 보면 기독교, 천주교를 가진 어머니와 불교를 가진 어머니가 종교가 없는 어머니보다 더 전통적인 가족관과 순종의 가치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의 순종의 가치선택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5세미만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순종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지 않았고 청소년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학동기자녀를 가진 어머니보다 순종의 가치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만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령은 상관관계가 높고($r=.87$, $p<.001$) 자녀의 발달 특성에 비추어 이해될 수 있다.

여러연구에서 어머니의 직업과 직업에 대한 태도가 자녀의 가치지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것(Harrell & Ridley, 1975; Parsons, Frieze & Ruble, 1978)과 달리 이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이 자녀의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 선택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아마도 조사대상자의 특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이 주부이거나 하위직인 생산판매직에 종사하고 있고 연령도 많아(평균연령 42세) 독립심의 가치보다 순종의 가치를 강조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중 생식가족에서의 독립심과 순종의 가치에 유의적 차이를 보인 변인들의 독립적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변인중 만자녀의 연령과 어머니의 연

령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 다중공선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순종의 가치에서 만자녀 연령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직업의 영향력을 알기위하여 주부집단을 제외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표 6, 7). 표 6, 7에 의하면 교육수준은 독립심의 가치에, 가족소득과 종교는 순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독립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반면 소득이 높은 가정의 어머니는 자녀에게 순종을 강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종교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순종의 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V. 결 론

본 연구는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서 가족내의 독립심의 가치와 순종의 가치가 세대에 걸쳐 전달되는지와 가치 인식의 변화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문제 분석을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방위가족과 생식가족에서 양세대의 어머니들은 책임감의 가치를 가장 중요시 하였으며 방위가족에서 보다 생식가족에서 독립심 가치는 중요성이 증가한 반면 순종의 가치는 중요성이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 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교육수준, 어머니의 교육수준 그리고 만자녀의 연령으로 밝혀졌다.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를 가진 경우와 청소년기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가 그들의 방위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가 강조되었음을 인식했다.

생식가족에서 독립심의 가치선택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만자녀 연령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일수록 자녀에게 독립심의 가치를 강조하였고 만이가 5세 미만의 유아기와 청소년기인 경우에 독립심의 가치를 중요시 하였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어머니가 독립심의 가치를 중요시한 것으로 인식했고 또한 조사대상자(기혼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신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순종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

변 인	순 종		
	B	β	T
연 령	.024	.090	1.54
소 득	-.194	-.153	-2.61**
종 교	.200	.137	2.37*

R2 = .06
F = 6.14***

*P<.05 **P<.01 ***P<.001

의 자녀에게 독립심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은 가정에서 독립심의 가치가 세대에 걸쳐 전달된다고 볼 수 있다. Smith와 Self (1980)도 어머니의 높은 교육수준이 모녀간에 유사성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방위가족에서 순종의 가치인식에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없는것으로 나타났고 생식가족에서 조사대상자의 연령, 가족소득, 종교와 만자녀의 연령은 순종의 가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가족소득이 높을수록, 종교생활을 하지않을때 순종의 가치는 감소하였으나 만이가 청소년인 40대 어머니의 경우 순종의 가치는 감소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조사대상이 경북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각 가치척도의 항목수가 적어 세대간의 가치전달 및 가치변화에 대해 포괄적인 답을 얻기엔 미흡하다고 볼 수 있고, 방위가족에서 인식한 가치에 대해 회상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주관적인 인식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변화하는 사회에서 자녀의 사회화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모의 가치관 변화와 부모자녀간의 가치전달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가족학분야에서 계속 탐구되어야 할 중요한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가족내의 가치전달과 변화현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의 개발이 요구되며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뿐 아니라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이나 대화 pattern과 같은 상호인간관계 관련 변인을 포함하여 가치전달과 변화현상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1) 김명자(1980). 가족관계에 대한 주부의 가치의식 변용에 대한 연구. 관동대학 논문집 8, 453-470.
- 2) 이춘재 외(1988). 청년심리학,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3) 이태현(1976). 가정학 원론.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4) 임희섭(1986). 사회변동과 가치관. 서울: 정음사.

- 5) 최재석(1977).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6) Alba, R.D.(1981). The twilight of ethnicity among American Catholics of European ancestry.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456, 86-97.
- 7) Allport, G.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8) Alwin, D.F.(1984). Trend in parental socialization values: Detroit, 1958-1983.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0, 359-382.
- 9) Baier, K.(1971). What is value? In K. Baier & N. Rescher(Eds.). Value and the Future. New York: Free press.
- 10) Barry, H., Child, I. & Bacon, M.(1973). Relation of child training to subsistence economy. In E.F. Zigler & I.L. Child(Eds.). Socialization and Personality Development. Massachusetts: Addison-Wesley co.
- 11) Bengtson, V.L.(1982). A generation gap? in J.P. Rosenfeld(Ed.). Relationships: The Marriage and Family Reader. IL: Scott, Foresman, & Company.
- 12) Boyd, R.(1975). Conformity reduction in adolescence. *Adolescence* 10, 297-300.
- 13) Clausen, J.A. & Clausen, S.R.(1973). The effects of family size on parents and children. In J.T. Fawcett(Ed.).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Population. New York: Basic Books.
- 14) Feather, N.T.(1975). Values in education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 15) Fengler, A.P. & Wood, V.(1973). Continuity between the generations: Differential influence of mothers and fathers. *Youth and Society* 4, 359-371.
- 16) Furstenberg, F.(1971). The transmission of mobility orientation in the family. *Social Forces* 49, 595-603.
- 17) Gross, I.H, Crandall, E.W. & Knoll, M.M.(1980). Management for modern familie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 18) Harrell, J.E. & Ridley, C.A.(1975). Substitute Child care, maternal employment, and the quality of mother child inter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556-564.

- 19) Kluckhorn, F.R.(1960). Variations in the basic values of family systems. IL ; the Free Press.
- 20) Kohn, M.L.(1981). Personality, occupation, and social stratification : A frame of reference. In D.J. Treiman & Robinson, R. V.(Eds.). Research in social stratification and Mobility. Greenwich : JAI.
- 21) Lee, G.L.(1977). Socialization. Philadelphia : Lippincott company.
- 22) Mortimer, J.T.(1976). Social class, work, and the family : Some implication of the father's occupation for familial relationships and son's career decis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8, 241.
- 23) Rokeach, M.(1973). The nature of human values. Glencoe, IL ; The Free Press.
- 24) Schlater, J.D.(1969). Investigating values underlying family decisions. Michigan Agricultural Experiment Station Bulletin.
- 25) Segre, S.(1975). Family stability, social classes and values in traditional and industrial societ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7, 431.
- 26) Simons, R.L., Beaman, J., Conger, R.D. & Chao, W.(1992).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arenting belief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4, 823-836.
- 27) Stinnett, N. & Kreps, C.(1972). Values relating to the development of character. *Journal of Home Economics* 64 : 53-57.
- 28) Troll, L. & Bengston, V.(1979). Generations in the family. In W.R. Burr, R. Hill, F.I. Nye, & I.L. Reiss(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Vol.2). New York : The Free Press.